

기업의 ESG 성과가 감사보수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rporate ESG Performance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임옥빈(Wook Bin Leem)** · 김동현(Dong Hyun Kim)***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구체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가 감사보수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분법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보고하는 ESG 등급이 감사보수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변화량 변수를 이용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실증분석결과,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과 유사하게 수준 변수를 활용하여 모형을 설정하는 경우, 차기 감사보수와 ESG 종합 및 각각 등급의 관계가 모두 정(+)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차분법을 적용하여 변화량 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한 모형의 분석결과, 이러한 관계는 사회(S)적 성과의 변화와 차기 감사보수 변화에서만 유의수준이 감소한 채 정(+)의 관련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기 감사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결과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의 변화가 감사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ESG 성과가 우수할수록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이 감소하므로 감사보수 또는 시간이 감소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국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추론한 이론과 실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국내 연구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차분법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으로 높은 기여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글색인어 : 감사보수, 감사시간, ESG 성과, 차분법

• 논문접수일 : 2022.9.27 • 1차수정일 : 2022.10.2. • 최종수정일 : 2022.11.7. • 게재확정일 : 2022.11.8.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지원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비즈니스컨설팅학과 교수, wookbin@hansung.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mershkim@naver.com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기업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다. 예컨대, Volkswagen의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스캔들과 같은 이슈는 기업에게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 Chu et al.(2005)는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기업의 명성, 평판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고한다. 즉,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과 요구가 있는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Kölbel et al., 2017 ; Joe, 2003).

만약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ESG 활동이 미흡한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감사위험이 증가한 경우, 박종일과 곽수근(2013)이 보고하는 바와 같이 감사 투입자원(노력)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가 미흡한 경우 감사위험의 증가로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ESG와 같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과 이슈에 대한 성과가 우수한 경우 감사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국외 선행연구들은 발생액 및 실물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행위가 감소하고 조세회피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hih et al., 2008 ; Kim et al., 2012 ; Hoi et al., 2013 ; Litt et al., 2014). 즉,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경우, 감사위험이 감소함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사한 맥락에 있는 국내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의 성과가 높을수록 고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받아 감사보수 및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최미화와 김확열, 2016 ; 박범진과 김연복, 2016 ; 김동영, 2012). 구체적으로, 감사보수 및 시간 그리고 CSR의 대응치로 KEJI의 자연로그 값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 감사위험이 감소하였음에도 고품질의 감사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의 분석결과에 대해 정준희와 이진화(2020)는 내생성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대응치인 KEJI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ho et al.(2013)은 내생성이 통제되지 않아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보고하고 있으며 2SLS(Two-stage Least Squares)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통해 기존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Nazari et al.(2017)는 표본선택편의(Sample-Selection Bias)를 지닌 표본을 통해 분석하는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에 국외에서는 KLD(Kinder, Lydenberg, Domini Research & Analytics)자료를 통해 일관된 결

과를 도출하고 있다(Litt et al., 2014 ; Kim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분법을 적용하고 표본선택편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의 ESG 등급을 대용치로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약 이론과 실증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부(-)의 관련성을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비재무적 성과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적용하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Sharma et al., 2018). 따라서, 연구의 가설은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 수행되어온 연구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설정한 경우, 이미 보고된 연구결과들과 유사하게 ESG 성과가 차기 감사보수 및 시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어 정(+)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경우, 이러한 관계는 사회(S)적 성과의 변화와 차기 감사보수 변화에서만 유의수준이 감소하나 정(+)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차기 감사시간 변화에서는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의 변화가 감사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감사인이 추가로 자원(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차기 감사보수 변화에 정(+)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에서는 이론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이론과 실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국내연구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선택편의에 자유로우며, 한국거래소에서 신규테마지수를 만드는데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이 높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등급을 활용하고 차분법을 적용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으로 높은 기여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후속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후, 제II장에서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평판이 감사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음 절에서 비재무적 성과가 감사위험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검토하고 연구의 가설을 설정한다. 제III장에서는 표본선정과정과 선정된 표본의 분포를 보고하고 연구모형에 대해 설명하며 연구방법에 대해 다룬다. 제IV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V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 논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2.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

Simunic(1980)은 감사위험과 감사품질에 의해 감사보수가 결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감사위험에 대해 ISA(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 200에서는 중요왜곡표시위험(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RoMM)가 적발위험(Detection Risk, DR)의 반비례 함수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RoMM은 감사대상 기업의 고유위험(Inherent Risk, IR)과 통제위험(Control Risk, CR)으로 구성된다. 감사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Polmrose(1989) 및 Caramnis and Lennox(2008)은 감사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에서 감사투입시간, 즉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는 감사인이 DR을 높여 RoMM을 낮추고 한다는 의미가 된다.

국내에서도 박종일과 곽수근(2013)의 연구결과처럼 피감사인의 소송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경우, 구체적으로 소송가액 및 소송건수가 높은 경우 감사시간이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권수영과 기은선(2011.a)는 감사인의 투입시간이 큰 경우, 경영자의 편의가 감소하고 정확성이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으며, 더불어 권수영 등(2012)는 이익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감사인의 명성, 산업전문성과 같은 감사품질이 전제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감사품질에 대해서 Deangelo(1981)는 감사품을 감사인이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과 오류를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확률로 정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감사품질이 우수함을 주장한다. 이후, Francis(1984) 및 Francis and Simon(1987)은 Deangelo(1981)의 주장에 따라 규모가 큰 감사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판단하여 대형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수행 여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같은 변수가 감사품질의 대용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형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인이 통제 가능한 DR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는 곧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RoMM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무제표의 오류로 인한 감사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특성을 지닌 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가 수행되는 경우 DR을 높이기 위해 감사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향상되어 감사보수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종합하면,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과 감사위험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감사위험모형에서는 RoMM과 DR 두 변수가 반비례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품

질이 높은 경우 감사위험이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감사위험이 높은 경우 감사품질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의 목적은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고 감사품질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는 것으로 다음 절에서 소개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의 성과(구체적으로 ESG성 과)가 이러한 요인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2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업의 평판

Deephouse(2000)는 사회적 이슈가 언론에서 다뤄지는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해 대중들이 중요한 문제로 분류하고 인식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나날이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ESG에 대한 관심은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기업에게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다.

특히, ESG에 대한 성과는 기업에게 더욱 크게 직면한 문제로 판단된다. 예컨대, 최근 발생한 Volkswagen의 사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Volkswagen은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스캔들로 인해 발생한 각종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작된 장치를 장착한 차량 약 1,100만대가 리콜대상이 되었다(Ewing, 2015). Chu et al.(2005)는 이와 같이 리콜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부품 교체나 수리비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기업의 이미지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ESG에 대한 성과가 미비한 경우, 기업의 평판이 크게 훼손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 시사할 수 있다. 더불어, Kölbl et al.(2017)은 ESG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Joe (2003)은 감사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더라도 언론에서 해당 위험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감사의견을 부정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이 통제할 수 있는 DR의 수준이 RoMM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바이다.

관련된 Healy and Wahlen(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의한 부정적인 관심과 재무적 취약성은 경영진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에 빗대어 본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요구가 이루어지는 ESG의 성과가 미비한 경우, 감사위험이 증가함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바이다.

2.3 비재무적 성과와 회계부정 및 감사보수 그리고 시간의 관계

먼저,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환경 및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이익조정과 같은 행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볼 부분은 환경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Litt et al.(2014)는 환경적 책임에 대해 KLD(Kinder, Lydenberg, Domini Research & Analytics) 자료를 통해 환경 이니셔티브를 적용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적용하는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으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어온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가 음(-)의 방향이 보고되어 환경적 책임이 있는 기업은 이익 조정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감사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Sharma et al.(2018)의 연구결과에서는 ESG성과와 감사보수의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감사위험이 증가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환경 이니셔티브를 적용하기 위해 증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감사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Sharma et al.(2018)의 연구는 환경 이니셔티브를 적용하며 감사보수가 증가할 때 기업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환경 이니셔티브를 적용하며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더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나타난 결과이나, 투자자들은 기업이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해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조정과 같은 회계부정 행위가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Chih et al.(2008)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지수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FTSE 지수에 포함된 글로벌 기업들이 재량적 발생액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적자회피 기업의 분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Kim et al.(2012)의 연구도 CSR의 대응치로 KLD의 CSR 점수를 활용하여 이익 조정의 대응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는 이익조정 대응치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 이익조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 값과 양의 재량적 발생액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비정상적인 제조원가가 감소하여 실물활

등을 통한 이익조정의 행위 역시 감소한다고 보고한다. 더불어, Hoi et al.(2013)도 KLD의 CSR 점수를 활용하여 조세회피 관행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무책임한 CSR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더욱 공격적인 조세회피 관행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감사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lein, 2002 ; Xie et al., 2003), 구체적으로 Klein(2002)의 연구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회의 특성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과반 수인 경우 이익조정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감사위원회 혹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정보비대칭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Xie et al.(2003)은 이사회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으며 회의 빈도가 높수록 기업의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중 재무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이사가 많을수록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며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고 보고한다.

종합적으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기업은 회계부정행위와 같은 정보비대칭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사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Simunic(1980) 및 DeFond and Zhang(2014)의 연구에서 감사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감사인은 위험프리미엄에 기초한 노력의 보상을 피감사인에게 청구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을 반대로 생각하였을 때, 감사보수 및 시간이 적게 투입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이다. 정리하면, 국외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추론한 바에 의하면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관점에서 책임있는 기업의 회계부정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RoMM이 감소하여 감사인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DR이 높아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관련된 국내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앞서 추론한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감사보수 및 시간과 비재무적 성과 중, CSR활동에 대해 KEJI의 자연로그 값을 대용치로 활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박범진과 김연복(2016)의 연구는 KEJI를 활용하여 CSR활동이 지속적일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최미화와 김확열(2016)의 연구에서도 KEJI를 활용하여 CSR활동과 감사보수는 양(+)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김동영(2012)의 연구에서도 KEJI를 활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배구조와 감사보수 및 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양(+)의 계수 값을 보고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평식과 윤현동, 2007 ; 최정호와 양해성, 2008 ; 김동영과 김영일, 2012).

2.4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실증분석 결과들이 이론과 상반되게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국외에서도 ESG(CSR)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Cho et al., 2013). 이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 한계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내생성의 문제와 일관되지 않은 ESG 활동의 측정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 국외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연구방법론 및 측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보비대칭간의 관련성에 대해 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ho et al.(2013)은 2SLS(Two-stage Least Squares)를 활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한 결과를 제시하며 CSR활동이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Nazari et al.(2017)은 S&P500에 포함된 기업들은 ESG 성과가 좋아보이도록 보이게끔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표본선택편의(sample self-selection bias)를 지닌 표본을 선택한 분석이 부적절함을 시사한다. 앞 절에서 소개한 연구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KLD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재무적 성과의 이니셔티브 적용 여부, 수 등을 대응치로 활용하여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ESG(CSR) 활동에 대한 실증결과들이 이론과 상반되어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은 크게 내생성의 문제와 ESG 활동 측정치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정준희와 이진화, 2020). 국내에서는 KEJI를 활용한 최미화와 김확열(2016)의 연구에서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에서 다른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활용되어온 대표적인 대응치 중 하나인 KEJI가 CSR활동의 적절한 대응치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KEJI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정준희와 이진화, 2020). 예컨대, KEJI는 상위 200개 기업에 대해서만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표본선택편의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국외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분법을 활용한다.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존재하나 대표적으로 차분법, 2SLS, PSM(Propensity-Score Matching)과 같이 3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적절한 방법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연구에서는 Defond(2015)의 연구결과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차분법을 활용한다.

두 번째로 측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JI보다 표본선택편의에 자유로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이하 KCGS)의 ESG 등급을 활용한다. KCGS의 ESG 등급산정을 위한 평가 모형은 한국거래소에서도 테마지수를 신규로 만드는데 활용하는 만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감사보수 및 시간에 대해 ESG활동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앞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바와 같이 부(-)의 관계가 보고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Sharma et al.(2018)이 보고하는 바와 같이 비재무적 성과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적용하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의 관련성을 지니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 ESG활동의 성과는 차기 감사보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연구가설2 : ESG활동의 성과는 차기 감사시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Ⅲ. 연구방법

3.1 표본선정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이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못한 기업을 제외하고 동시에 회계기간이 동일한 기업들로 설정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적절치 아니하여 제외하였다. 더불어,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외하였으며, 마찬가지로 KCGS에서 발표하는 ESG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 표본이 10개 미만인 산업의 경우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9개년도에서 4,01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표 1>에 보고한다.

〈표 1〉 표본의 분포

Sample Selection Process	Obs.
12월 결산법인이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35,242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1,972)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외	(10,003)
KCGS ESG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외	(18,113)
표본이 10개 미만인 산업의 경우 제외	(1,144)
최종 표본	4,010

〈표 2〉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의 회계연도 및 산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먼저, Panel A는 회계연도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1년은 가장 적은 약 3.52%의 표본이 분포되었으며, 2019년에는 가장 많은 약 16.08%가 분포되었다. 이처럼 일부 연도에서 표본이 많거나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연도에서는 매년 약 11~12%로 표본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이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 많은 관심과 요구를 받는 ESG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표본의 회계연도 및 산업별 분포

Panel A : 연도별 표본 분포

Fiscal Year	Obs.	Ratio(%)
2011	141	3.52
2012	424	10.57
2013	438	10.92
2014	444	11.07
2015	452	11.27
2016	475	11.85
2017	496	12.37
2018	495	12.34
2019	645	16.08
Total	4,010	100.00

〈표 2〉 표본의 회계연도 및 산업별 분포 (계속)

Panel B : 산업별 표본 분포		
Korea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Obs.	Ratio(%)
식품 제조업	224	5.5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8	2.9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1	3.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521	12.9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92	7.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6	4.3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0	3.49
1차 금속 제조업	351	8.7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43	1.0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0	6.9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	0.27
전기장비 제조업	120	2.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8	5.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0	7.7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0.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	0.25
종합 건설업	171	4.2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4	7.58
소매업 ; 자동차 제외	127	3.17
출판업	17	0.42
정보서비스업	12	0.30
전문 서비스업	414	10.32
Total	4,010	100.00

다음으로 Panel B는 표본의 산업별(중분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각각 10개(약 0.25%)의 표본이 분포되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에 521개(약 12.99%) 이 표본이 분포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표본을 제조업과 제조업 외 업종을 구분하면, 제조업의 경우 2,955개(약 73.68%)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는 표본으로 판단하였다.

3.2 연구모형

식(1) 및 (2)는 차분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모형으로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온 바와 같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권수영과 기은선(2011.b)에서 활용된 연구모형을 활용하였다.

$$\begin{aligned} \ln AF_{i,t+1} = & \alpha_0 + \alpha_1 ESG Rank(ESG, E, S, G) + \alpha_2 SIZE_{i,t} + \alpha_3 INVREC_{i,t} \\ & + \alpha_4 LEV_{i,t} + \alpha_5 CR_{i,t} + \alpha_6 ROA_{i,t} + \alpha_7 ISSUE_{i,t} + \alpha_8 SCOM_{i,t} \\ & + \alpha_9 BOWN_{i,t} + \alpha_{10} FOWN_{i,t} + \alpha_{11} BIGA_{i,t} + \alpha_{12} FIRST_{i,t} \\ & + \alpha_{13} MK_{i,t} + \alpha_{14} LOSS_{i,t} + \sum YD + \sum IN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

$$\begin{aligned} \ln AH_{i,t+1} = & \alpha_0 + \alpha_1 ESG Rank(ESG, E, S, G) + \alpha_2 SIZE_{i,t} + \alpha_3 INVREC_{i,t} \\ & + \alpha_4 LEV_{i,t} + \alpha_5 CR_{i,t} + \alpha_6 ROA_{i,t} + \alpha_7 ISSUE_{i,t} + \alpha_8 SCOM_{i,t} \\ & + \alpha_9 BOWN_{i,t} + \alpha_{10} FOWN_{i,t} + \alpha_{11} BIGA_{i,t} + \alpha_{12} FIRST_{i,t} \\ & + \alpha_{13} MK_{i,t} + \alpha_{14} LOSS_{i,t} + \sum YD + \sum IN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2)$$

먼저, 식(1)과 (2)의 아래첨자 i 는 기업을 나타내며 t 는 연도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각각 차기 감사보수의 수준($\ln AF$)과 차기 감사시간의 수준($\ln AH$)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의 의견에 의하면 감사위험이 높은 경우,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하고 이에 감사보수가 증가한다 (Polmrose, 1989 ; Caramnis and Lennox, 2008). 따라서 차기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양의 값을 지닌 경우, 감사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감사위험을 낮출 것으로 추측되는 연구의 관심변수는 ESG 성과(ESG Rank)이다. ESG 성과는 KCGS에서 발표하는 등급을 이용하여 종합등급(ESG),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분에 대한 등급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6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등급(A+)에 6을 부여하고 가장 낮은 등급(D)에 1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통제변수는 권수영과 기은선(2011.b)의 의견에 따라 감사보수 및 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된 기업의 규모(SIZE),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INVREC),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중(LEV), 유동비율(CR),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중(ROA), 총자산 대비 사채와 주식 발행 대금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ISSUE), 관계회사 수의 자연로그 값(SCOM), 대주주 지분율(BOWN), 외국인 지분율(FOWN)를 추가하였으며, 대형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수행 여부,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초도감사 여부, 2년간 당기순손실 여부를 활용하였으며

연도-산업에 의한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의 측정방법을 <표 3>에 요약하였다.

<표 3> 변수 측정방법 요약

Variable	Measurement
$\ln AF_{i,t+1}$	차기(T+1)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ln AH_{i,t+1}$	차기(T+1)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ESG Rank_{i,t}$	ESG 관련 등급이 향상된 경우 1, 아닌 경우 0
$ESG_{i,t}$	KCGS ESG 등급(A+ : 6, A : 5, B+ : 4, B : 3, C : 2, D : 1)
$E_{i,t}$	KCGS E 등급(A+ : 6, A : 5, B+ : 4, B : 3, C : 2, D : 1)
$S_{i,t}$	KCGS S 등급(A+ : 6, A : 5, B+ : 4, B : 3, C : 2, D : 1)
$G_{i,t}$	KCGS G 등급(A+ : 6, A : 5, B+ : 4, B : 3, C : 2, D : 1)
$SIZE_{i,t}$	총자산의 자연로그
$INVREC_{i,t}$	(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LEV_{i,t}$	총부채/총자산
$CR_{i,t}$	유동자산/유동부채
$ROA_{i,t}$	당기순이익/총자산
$ISSUE_{i,t}$	(사채발행금액+주식발행대금)/총자산
$SCOM_{i,t}$	관계회사 수의 자연로그 값
$BOWN_{i,t}$	대주주 지분율
$FOWN_{i,t}$	외국인주주 지분율
$BIG4_{i,t}$	국외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감사인에 의한 감사수행 여부
$FIRST_{i,t}$	초도감사여부
$LOSS_{i,t}$	2년간 당기순손실여부
YD	연도별 더미 변수
IND	산업별 더미 변수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권수영과 기은선(2011.b)을 수정하여 차분을 적용한 변화량 모형으로 다음의 (3) 및 (4)와 같이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Delta AF_{i,t+1} = & \alpha_0 + \alpha_1 \Delta ESG Rank(\Delta ESG, \Delta E, \Delta S, \Delta G) + \alpha_2 \Delta SIZE_{i,t} \\ & + \alpha_3 \Delta INVREC_{i,t} + \alpha_4 \Delta LEV_{i,t} + \alpha_5 \Delta CR_{i,t} + \alpha_6 \Delta NI_{i,t} \\ & + \alpha_7 \Delta ISSUE_{i,t} + \alpha_8 \Delta SCOM_{i,t} + \alpha_9 \Delta BOWN_{i,t} \\ & + \alpha_{10} \Delta FOWN_{i,t} + \alpha_{11} \Delta BIGA_{i,t} + \alpha_{12} \Delta FIRST_{i,t} + \alpha_{13} \Delta LOSS_{i,t} \\ & + \sum YD + \sum IN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3)$$

$$\begin{aligned} \Delta AH_{i,t+1} = & \alpha_0 + \alpha_1 \Delta ESG Rank(\Delta ESG, \Delta E, \Delta S, \Delta G) + \alpha_2 \Delta SIZE_{i,t} \\ & + \alpha_3 \Delta INVREC_{i,t} + \alpha_4 \Delta LEV_{i,t} + \alpha_5 \Delta CR_{i,t} + \alpha_6 \Delta NI_{i,t} \\ & + \alpha_7 \Delta ISSUE_{i,t} + \alpha_8 \Delta SCOM_{i,t} + \alpha_9 \Delta BOWN_{i,t} \\ & + \alpha_{10} \Delta FOWN_{i,t} + \alpha_{11} \Delta BIGA_{i,t} + \alpha_{12} \Delta FIRST_{i,t} + \alpha_{13} \Delta LOSS_{i,t} \\ & + \sum YD + \sum IN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4)$$

식(3)과 (4)의 종속변수는 각각 차기 감사보수의 변화(ΔAF)와 차기 감사시간의 변화(ΔAH)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의 의견에 의하면 감사위험이 높은 경우,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하고 이에 감사보수가 증가한다(Palmrose, 1989 ; Caramanis and Lennox, 2008). 따라서 차기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변화가 양의 값을 지닌 경우, 감사위험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감사위험을 낮출 것으로 추측되는 연구의 관심변수는 ESG 성과의 변화($\Delta ESG Rank$)이다. ESG 성과는 KCGS에서 발표하는 등급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서 차분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모형에서 ESG 등급에 따른 점수를 토대로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통제변수는 권수영과 기은선(2011.b)의 의견에 따라 감사보수 및 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변화량으로 수정하여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의 변화($\Delta SIZE$),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변화($\Delta INVREC$), 부채의 변화(ΔLEV), 당기순이익의 변화(ΔNI), 자금조달의 변화($\Delta ISSUE$), 관계회사 수의 변화($\Delta SCOM$), 대주주 지분율의 변화($\Delta BOWN$), 외국인 지분율의 변화($\Delta FOWN$)를 추가하였으며, 대형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수행 여부,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초도감사 여부, 2년간 당기순손실 여부를 활용하였으며 연도-산업에 의한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의 측정방법을 <표 4>에 요약하였다.

〈표 4〉 변수 측정방법 요약(변화량)

Variable	Measurement
$\Delta AF_{i,t+1}$	(차기 감사보수 - 당기 감사보수) / 당기 감사보수
$\Delta AH_{i,t+1}$	(차기 감사시간 - 당기 감사시간) / 당기 감사시간
$\Delta ESG Rank_{i,t}$	(당기 ESG 관련 등급 - 전기 ESG 관련 등급) / 전기 ESG 관련 등급
$\Delta ESG_{i,t}$	(당기 ESG 등급 - 전기 ESG 등급) / 전기 ESG 등급
$\Delta E_{i,t}$	(당기 E 등급 - 전기 E 등급) / 전기 E 등급
$\Delta S_{i,t}$	(당기 S 등급 - 전기 S 등급) / 전기 S 등급
$\Delta G_{i,t}$	(당기 G 등급 - 전기 G 등급) / 전기 G 등급
$\Delta SIZE_{i,t}$	(총자산 - 전기총자산) / 전기총자산
$\Delta INVREC_{i,t}$	((재고자산 + 매출채권) - (전기재고자산 + 전기매출채권)) / (전기재고자산 + 전기매출채권)
$\Delta LEV_{i,t}$	(총부채 - 전기총부채) / 전기총부채
$\Delta CR_{i,t}$	(유동자산 - 전기유동자산) / 전기유동자산
$\Delta NI_{i,t}$	(당기순이익 - 전기당기순이익) / 전기당기순이익
$\Delta ISSUE_{i,t}$	((사채발행대금 + 주식발행대금) - (전기사채발행대금 + 전기주식발행대금)) / (전기사채발행대금 + 전기주식발행대금)
$\Delta SCOM_{i,t}$	(관계회사 수 - 전기관계회사 수) / 전기관계회사 수
$\Delta BOWN_{i,t}$	(대주주 지분율 - 전기대주주 지분율) / 전기대주주 지분율
$\Delta FOWN_{i,t}$	(외국인주주 지분율 - 전기외국인주주 지분율) / 전기외국인주주 지분율

IV. 가설검증 및 결과분석

4.1 기술통계량

〈표 5〉는 차분법을 적용하기 전 모형, 구체적으로 식(1)과 (2)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나타낸다. 가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상·하 1%에서 극단치를 조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활용한 감사보수의 수준(lnAF)의 평균 값(중위 값)은 11.844(11.695)로 나타났다. 감사시간(lnAH)의 수준은 7.506(7.351)로 나타났다.

관심변수로 활용한 ESG 종합 성과는 2.392(2.000)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위 값도 2.000으로 나타나 75%이상의 표본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환경(E)성과는 2.572

(2.000), 사회(S)성과는 2.586(2.000)로 나타나 환경 및 사회 등급의 표본의 50% 이상이 평균보다 낮은 등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배구조(G)성과는 2.886(3.000)으로 50% 미만의 표본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를 살펴보면 SIZE는 20.004(19.776)으로 나타나 평균과 중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LEV는 0.0401(0.0403)로 나타났으며 ROA는 0.016(0.024), ISSUE는 0.158(0.093)로 나타나 평균과 중위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INVREC는 0.550(0.233)으로 나타났으며, SCOM은 2.258(2.000)로 최대 값이 극단치를 조정하여도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평균과 중위 값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OWN의 평균은 0.442로 표본의 대주주 지분율 평균은 약 44.2%로 FOWN은 0.101로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약 10.1%로 판단되었다.

〈표 5〉 기술통계량(n=4,010)

Variables	Means	Min	Q1	Median	Q3	Max
$LNAF_{i,t+1}$	11.844	10.258	11.235	11.695	12.301	14.457
$LNAH_{i,t+1}$	7.506	6.087	6.909	7.351	7.969	10.023
$ESG_{i,t}$	2.392	1.000	2.000	2.000	2.000	6.000
$E_{i,t}$	2.572	1.000	2.000	2.000	4.000	6.000
$S_{i,t}$	2.586	1.000	2.000	2.000	3.000	6.000
$G_{i,t}$	2.886	1.000	2.000	3.000	3.000	6.000
$SIZE_{i,t}$	20.004	17.371	19.034	19.776	20.729	24.249
$INVREC_{i,t}$	0.550	0.007	0.136	0.233	0.389	11.626
$LEV_{i,t}$	0.401	0.020	0.231	0.403	0.555	0.927
$CR_{i,t}$	2.920	0.084	0.922	1.416	2.384	50.900
$ROA_{i,t}$	0.016	-0.343	0.003	0.024	0.050	0.187
$ISSUE_{i,t}$	0.158	0.002	0.040	0.093	0.177	1.273
$SCOM_{i,t}$	2.258	1.000	1.414	2.000	2.828	7.071
$BOWN_{i,t}$	0.442	0.100	0.330	0.450	0.548	0.818
$FOWN_{i,t}$	0.101	0.000	0.017	0.050	0.143	0.562
$BIG4_{i,t}$	0.662	0.000	0.000	1.000	1.000	1.000
$FIRST_{i,t}$	0.141	0.000	0.000	0.000	0.000	1.000
$LOSS_{i,t}$	0.208	0.000	0.000	0.000	0.000	1.000

note : 변수의 측정은 〈표 3〉의 방법에 따른다.

또한, 가변수로 측정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BIG4는 0.662로 표본의 약 66.2%는 국외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한 감사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FIRST는 0.141로 표본의 약 14.1%가 신규 감사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LOSS는 0.208로 표본의 약 20.8%가 2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은 식(3) 및 (4)의 연구모형에 활용하고자 변화량으로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가변수들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상·하 1%에서 Winsorization 하여 극단치를 조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차기 감사보수의 변화(ΔAF)의 평균은 약 0.010으로 차기에 감사보수가 평균적으로 약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차기 감사시간(ΔAH)의 평균은 약 0.012로 차기에 감사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변수인 ESG 및 E, S, G 등급 변화는 6개의 등급을 가장 높은 등급에 6점을 부여하고 가장 낮은 등급에 1점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변화량으로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ESG 등급 변화의 평균은 약 0.027로 나타났으며, E 등급 변화의 평균은 약 0.013으로 나타났다. 또한, S 등급 변화의 평균은 약 0.057로 나타나 가장 높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G 등급 변화의 평균은 약 0.04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 및 지배구조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보다 평균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이 전년보다 약 1%에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Delta SIZE$ 는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 INVREC$ 는 약 1%, ΔLEV 는 약 4.9%, ΔCR 은 약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보다 증가한 통제변수 중, $\Delta ISSUE$ 와 $\Delta FOWN$ 의 경우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Delta ISSUE$ 의 평균은 약 0.254로 나타나 전년보다 사채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액의 평균이 약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Delta FOWN$ 의 평균은 약 0.334로 전년보다 외국인 지분을 증가의 평균이 약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elta BOWN$ 은 0.000의 값을 나타내어 대주주 지분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ΔNI , $\Delta SCOM$ 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ΔNI 의 평균은 약 -0.153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약 1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lta SCOM$ 의 평균은 약 -0.067로 관계회사의 수가 전년보다 약 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변수로 측정된 통제변수인 BIG4의 평균은 약 0.659로 약 65.9%의 표본이 국외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한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RST의 평균은 약 0.145로 약 14.5%의 표본이 신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OSS의 평균은 약 0.213으로 표본의 약 21.3%가 2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변화량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모형의 변수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기술통계량(변화량, n=3,456)

Variables	Means	Min	Q1	Median	Q3	Max
$\Delta AF_{i,t+1}$	0.010	-0.053	0.000	0.003	0.015	0.100
$\Delta AH_{i,t+1}$	0.012	-0.080	-0.003	0.005	0.025	0.156
$\Delta ESG_{i,t}$	0.027	-0.750	0.000	0.000	0.000	2.000
$\Delta E_{i,t}$	0.013	-0.800	0.000	0.000	0.000	1.500
$\Delta S_{i,t}$	0.057	-0.750	0.000	0.000	0.000	2.000
$\Delta G_{i,t}$	0.049	-0.750	0.000	0.000	0.000	5.000
$\Delta SIZE_{i,t}$	0.034	-0.381	-0.023	0.021	0.074	0.668
$\Delta INVREC_{i,t}$	0.010	-0.791	-0.125	-0.001	0.118	1.793
$\Delta LEV_{i,t}$	0.049	-0.688	-0.096	0.002	0.116	1.893
$\Delta CR_{i,t}$	0.048	-0.722	-0.089	0.015	0.123	1.725
$\Delta NI_{i,t}$	-0.153	-21.644	-0.756	-0.156	0.390	21.280
$\Delta ISSUE_{i,t}$	0.254	-0.835	0.000	0.000	0.027	9.000
$\Delta SCOM_{i,t}$	-0.067	-0.553	-0.134	0.000	0.000	1.236
$\Delta BOWN_{i,t}$	0.000	-0.425	-0.004	0.000	0.001	0.641
$\Delta FOWN_{i,t}$	0.334	-0.883	-0.190	0.008	0.288	9.571
$BIG4_{i,t}$	0.659	0.000	0.000	1.000	1.000	1.000
$FIRST_{i,t}$	0.145	0.000	0.000	0.000	0.000	1.000
$LOSS_{i,t}$	0.213	0.000	0.000	0.000	0.000	1.000

note : 변수의 측정은 〈표 4〉의 방법에 따른다.

4.2 다변량분석

본 절에서는 ESG 성과가 차기 감사보수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차분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를 〈표 7〉과 〈표 8〉에 보고한다.

〈표 7〉의 결과는 차기 감사보수 수준에 ESG 성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식(1)의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결과, ESG 및 E, S, G 각각의 부분에 대한 성과는 차기 감사보수 수준에 대해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차분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차기 감사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감사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사보수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연구결과이다.

〈표 7〉 ESG성과가 차기 감사보수 수준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ln AF_{i,t+1}$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i>Intercept</i>	3.681***	25.79	3.493***	24.11	3.771***	26.30	3.322***	24.64
<i>ESG_{i,t}</i>	0.061***	7.74						
<i>E_{i,t}</i>			0.027***	3.74				
<i>S_{i,t}</i>					0.062***	9.03		
<i>G_{i,t}</i>							0.023***	2.72
<i>SIZE_{i,t}</i>	0.393***	49.6	0.407***	50.89	0.387***	48.69	0.415***	55.99
<i>INVREC_{i,t}</i>	0.018***	4.02	0.019***	4.05	0.019***	4.10	0.019***	4.11
<i>LEV_{i,t}</i>	0.414***	10.47	0.408***	10.26	0.408***	10.35	0.418***	10.51
<i>CR_{i,t}</i>	-0.003***	-2.95	-0.003***	-2.92	-0.003***	-3.10	-0.003***	-2.98
<i>ROA_{i,t}</i>	-0.518***	-5.17	-0.497***	-4.92	-0.513***	-5.13	-0.515***	-5.09
<i>ISSUE_{i,t}</i>	0.268***	7.48	0.285***	7.90	0.263***	7.36	0.301***	8.36
<i>SCOM_{i,t}</i>	0.098***	14.39	0.098***	14.30	0.099***	14.53	0.097***	14.15
<i>BOWN_{i,t}</i>	-0.364***	-8.12	-0.373***	-8.26	-0.375***	-8.39	-0.379***	-8.40
<i>FOWN_{i,t}</i>	0.378***	5.71	0.381***	5.72	0.369***	5.59	0.384***	5.76
<i>BIG4_{i,t}</i>	0.223***	14.85	0.228***	15.14	0.221***	14.75	0.224***	14.83
<i>FIRST_{i,t}</i>	0.02	1.10	0.016	0.89	0.017	0.98	0.019	1.03
<i>LOSS_{i,t}</i>	-0.016	-1.02	-0.013	-0.83	-0.016	-1.04	-0.016	-0.99
<i>YD</i>	Included							
<i>IND</i>	Included							
F-value	402.63***		396.93***		405.30***		396.10***	
Adj. R ²	0.8042		0.8019		0.8052		0.8016	
Max VIF	3.366		3.386		3.413		2.905	
Obs.	4,010							

note : *** 및 **, *는 각각 1% 및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더불어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표 3〉을 따른다.

〈표 8〉의 결과는 차기 감사시간 수준에 ESG 성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식(2)의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결과, ESG 및 E, S, G 각각의 부문에 대한 성과는 차기 감사시간 수준에 대해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차분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는 바와 같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차기 감사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감사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연구결과이다.

〈표 8〉 ESG성과가 차기 감사시간 수준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ln AH_{i,t+1}$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i>Intercept</i>	-0.63***	-5.09	-0.785***	-6.23	-0.616***	-4.93	-0.978***	-8.34
<i>ESG_{i,t}</i>	0.06***	8.77						
<i>E_{i,t}</i>			0.031***	4.88				
<i>S_{i,t}</i>					0.052***	8.58		
<i>G_{i,t}</i>							0.026***	3.56
<i>SIZE_{i,t}</i>	0.386***	56.16	0.398***	57.29	0.386***	55.70	0.407***	63.18
<i>INVREC_{i,t}</i>	0.015***	3.82	0.015***	3.84	0.016***	3.91	0.016***	3.91
<i>LEV_{i,t}</i>	0.266***	7.76	0.26***	7.51	0.262***	7.63	0.271***	7.83
<i>ROA_{i,t}</i>	-0.282***	-3.23	-0.26***	-2.96	-0.275***	-3.15	-0.28***	-3.19
<i>ISSUE_{i,t}</i>	0.169***	5.42	0.183***	5.85	0.169***	5.42	0.201***	6.44
<i>SCOM_{i,t}</i>	0.102***	17.19	0.102***	17.12	0.102***	17.24	0.101***	16.91
<i>BOWN_{i,t}</i>	-0.208***	-5.34	-0.214***	-5.47	-0.22***	-5.64	-0.221***	-5.64
<i>FOWN_{i,t}</i>	0.103*	1.78	0.104*	1.79	0.097*	1.69	0.107*	1.85
<i>BIG4_{i,t}</i>	0.277***	21.29	0.282***	21.58	0.276***	21.20	0.278***	21.16
<i>FIRST_{i,t}</i>	0.046***	2.96	0.042***	2.7	0.044***	2.81	0.045***	2.88
<i>LOSS_{i,t}</i>	0.000	0.00	0.003	0.22	0.000	0.00	0.000	0.01
<i>YD</i>	Included							
<i>IND</i>	Included							
F-value	496.13***		488.36***		495.67***		486.73***	
Adj. R ²	0.8351		0.8329		0.835		0.8324	
Max VIF	3.366		3.386		3.413		2.905	
Obs.	4,010							

note : *** 및 **, *는 각각 1% 및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더불어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표 3〉을 따른다.

〈표 9〉 및 〈표 10〉의 결과는 차분을 적용하여 차기 감사보수 및 시간의 변화량과 ESG 성과 변화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식(3) 및 식(4)의 연구모형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표 9〉의 결과는 차기 감사보수 변화에 대해 ESG 및 E, S, G 성과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ESG 및 E, G 부분에서는 차기 감사보수 변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귀무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ESG성과 변화가 차기 감사보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Delta AF_{i,t+1}$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i>Intercept</i>	0,022***	16,25	0,022***	16,22	0,022***	16,06	0,022***	16,25
$\Delta ESG_{i,t}$	-0,001	-0,50						
$\Delta E_{i,t}$			0,001	0,49				
$\Delta S_{i,t}$					0,003**	2,54		
$\Delta G_{i,t}$							0,000	-0,34
$\Delta SIZE_{i,t}$	0,011***	3,00	0,011***	2,99	0,010***	2,95	0,011***	3,00
$\Delta INVREC_{i,t}$	0,001	0,55	0,001	0,56	0,001	0,54	0,001	0,56
$\Delta LEV_{i,t}$	0,000	0,10	0,000	0,10	0,000	0,16	0,000	0,10
$\Delta CR_{i,t}$	0,001	0,71	0,001	0,72	0,001	0,74	0,001	0,72
$\Delta ROA_{i,t}$	0,000	-0,50	0,000	-0,50	0,000	-0,48	0,000	-0,50
$\Delta ISSUE_{i,t}$	0,000	-0,54	0,000	-0,53	0,000	-0,53	0,000	-0,53
$\Delta SCOM_{i,t}$	0,001	0,70	0,001	0,69	0,001	0,69	0,001	0,69
$\Delta BOWN_{i,t}$	-0,003	-1,08	-0,003	-1,10	-0,003	-1,03	-0,003	-1,09
$\Delta FOWN_{i,t}$	0,000**	-1,97	0,000*	-1,96	0,000*	-1,91	0,000**	-1,97
$BIG4_{i,t}$	0,000	0,33	0,000	0,28	0,000	0,09	0,000	0,29
$FIRST_{i,t}$	-0,005***	-5,51	-0,005***	-5,51	-0,005***	-5,48	-0,005***	-5,47
$LOSS_{i,t}$	0,000	0,36	0,000	0,35	0,000	0,34	0,000	0,35
<i>YD</i>	Included							
<i>IND</i>	Included							
F-value	17,98***		17,98***		18,16***		17,97***	
Adj. R ²	0,1643		0,1643		0,1658		0,1642	
Max VIF	2,145		2,146		2,146		2,146	
Obs.	3,456							

note : *** 및 **, *는 각각 1% 및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더불어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표 4〉를 따른다.

반면, S 성과의 변화에서는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미화와 김확열(201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SLS뿐만 아니라, 차분법을 적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성과가 감사보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미화와 김확열(2016)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사회적 성과의 변화가 높은 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의 마지막 분석결과는 차기 감사시간 변화에 대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10>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ESG 및 E, S, G 각각의 부분의 변화는 차기 감사시간 변화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차기 감사보수 변화에 대해 S 성과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감사위험이 증가함으로써,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감사인이 더 자원을 투입하거나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즉, <표 9>에서 나타난 결과의 원인은 감사인의 자원투입(노력)에 의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¹⁾

<표 10> ESG성과 변화가 차기 감사시간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Delta AH_{i,t+1}$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i>Intercept</i>	0.023***	10.20	0.024***	10.24	0.023***	10.10	0.024***	10.21
$\Delta ESG_{i,t}$	0.001	0.48						
$\Delta E_{i,t}$			0.002	0.87				
$\Delta S_{i,t}$					0.002	1.12		
$\Delta G_{i,t}$							-0.001	-0.39
$\Delta SIZE_{i,t}$	0.018***	2.97	0.018***	2.96	0.018***	2.95	0.018***	2.98

1) 표본을 기업규모의 변화($\Delta SIZE$)의 값을 내림차순으로 5분위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감사보수 변화의 경우 매우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1분위에서 ESG 등급 변화에 대해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나타내었으며, 2분위에서는 E와 S 등급 변화에서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었으며, 3분위에서는 ESG 등급 변화에 대해 10%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4분위에서는 ESG, E 및 S 등급 변화에서 1%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었고 5분위에서는 S 등급 변화에서 5%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시간 변화를 통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2분위에서 S 등급의 변화만 10%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감사보수의 변화가 감사시간의 변화로 인한 결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0〉 ESG성과 변화가 차기 감사시간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계속)

Variables	$\Delta AH_{i,t+1}$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
$\Delta INVREC_{i,t}$	0.004**	2.43	0.004**	2.43	0.004**	2.41	0.004**	2.42
$\Delta LEV_{i,t}$	-0.001	-0.49	-0.001	-0.47	-0.001	-0.45	-0.001	-0.48
$\Delta CR_{i,t}$	-0.001	-0.61	-0.001	-0.61	-0.001	-0.61	-0.001	-0.62
$\Delta ROA_{i,t}$	0.000	-0.71	0.000	-0.71	0.000	-0.71	0.000	-0.72
$\Delta ISSUE_{i,t}$	0.000	-0.48	0.000	-0.48	0.000	-0.48	0.000	-0.48
$\Delta SCOM_{i,t}$	-0.001	-0.48	-0.001	-0.49	-0.001	-0.48	-0.001	-0.48
$\Delta BOWN_{i,t}$	-0.013**	-2.43	-0.013**	-2.45	-0.013**	-2.40	-0.013**	-2.44
$\Delta FOWN_{i,t}$	-0.001**	-2.31	-0.001**	-2.31	-0.001**	-2.29	-0.001**	-2.31
$BIG4_{i,t}$	-0.005***	-3.71	-0.005***	-3.70	-0.005***	-3.76	-0.005***	-3.67
$FIRST_{i,t}$	-0.01***	-6.36	-0.01***	-6.37	-0.01***	-6.35	-0.01***	-6.33
$LOSS_{i,t}$	-0.001	-0.92	-0.001	-0.92	-0.001	-0.92	-0.001	-0.92
YD	Included							
IND	Included							
F-value	5.59***		5.60***		5.61***		5.59***	
Adj. R ²	0.0504		0.0506		0.0507		0.0504	
Max VIF	2.145		2.146		2.146		2.146	
Obs.	3,456							

note : *** 및 **, *는 각각 1% 및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더불어 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표 4〉를 따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감사보수 및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거나 책임을 지닌 기업들의 경우,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조세회피와 같은 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사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반면, 일부 연

구의 분석결과는 ESG와 같은 맥락의 비재무적 성과가 감사보수 및 시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비재무적 성과와 감사보수 및 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추론한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관련된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생성 오류에 대한 문제와 분석에 활용된 표본이 지닌 표본선택편의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였을 때, 과거에 수행되어온 대부분 국내 연구들이 KEJI를 활용하여 보고하는 비재무적 성과와 감사보수 및 시간에 정(+)¹의 관련성은 KEJI의 태생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내생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차분법을 적용하고 동시에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KCGS의 ESG 성과자료를 비재무적 성과의 대용치로 활용하였다. 이 경우,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감사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KCGS의 ESG 성과를 대용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수준 변수를 활용한 연구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에서 이미 보고된 분석결과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차기 감사보수 및 시간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차분법을 적용하여 변수를 변화량으로 설정한 경우, S 성과의 변화를 제외한 분석 결과에서 이러한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S 성과 변화의 경우, 차기 감사보수의 변화에 대해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²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차기 감사시간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기 감사보수의 변화가 차기 감사시간 변화의 증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ESG 성과가 높아지더라도 감사인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ESG 성과가 높은 기업에게 감사인이 고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감사인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의 대

용치로 활용한 KCGS의 ESG 등급이 KEJI보다 표본선택편의에서 자유로우며, 한국거래소와 같은 기관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대응치를 통한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적절한 대응치로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연구에서 적용한 차분법이 내생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차분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높은 기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비재무적 성과 중, 사회적 성과의 향상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찾는 후속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수영 · 기은선. 2011a. 감사품질이 경영자 예측정보의 편의성 및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 감사능력 대 감사노력. 회계학연구 36(1) : 71-124.
- 권수영 · 기은선. 2011b. 발생액의 질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36(4) : 95-137.
- 권수영 · 기은선 · 허진숙. 2012. 감사노력이 계속감사기간과 이익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7(4) : 83-120.
- 김동영. 2012. 기업사회적책임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6(4) : 129-151.
- 김동영 · 김영일. 2012. 기업지배구조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5) : 247-265.
- 박범진 · 김연복. 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CSR)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4) : 73-97.
- 박종일 · 광수근. 2013.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이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2(1) : 41-76.
- 손평식 · 윤현동. 2007. 지배구조와 감사보수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6) : 2667-2686.
- 정준희 · 이진화. 2020. 기업의 CSR 활동이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 ESG 활동과 산업의 진입장벽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3(3) : 113-138.
- 최미화 · 김확열. 2016. CSR 활동과 감사품질, 기업가치. 회계와 정책연구 21(1) : 25-51.
- 최정호 · 양해성. 2008.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련성 분석. 회계정보연구 26(1) : 59-77.
- Chih, H. L., C. H. Shen, and F. C. Kang. 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or prote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 Som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79(1) : 179-198., <https://10.1007/s10551-007-9383-7>
- Chu, T. H., C. C. Lin, and L. J. Prather. 2005. An extension of security price reactions around product recall announcements. *Quarterly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44(3) : 33-48., <https://www.jstor.org/stable/40473403>
-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 183-199., [https://doi.org/10.1016/0165-4101\(81\)90002-1](https://doi.org/10.1016/0165-4101(81)90002-1).
- Deephouse, D. L. 2000. Media reputation as a strategic resource : An integration of mass communication and resource-based theories. *Journal of Management* 26(6) : 1091-

- 1112., [https://doi.org/10.1016/S0149-2063\(00\)00075-1](https://doi.org/10.1016/S0149-2063(00)00075-1)
- DeFond, M., and J. Zhang. 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3) : 275–326.,
<https://doi.org/10.1016/j.jacceco.2014.09.002>
- Ewing, J. 2015. *Volkswagen says 11 million cars worldwide are affected in diesel deception*. *The New York Times* 22(9).
- Francis, J. R.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2) : 133–151.,
[https://doi.org/10.1016/0165-4101\(84\)90010-7](https://doi.org/10.1016/0165-4101(84)90010-7)
- Francis, J. R. and D. T. Simon. 1987. A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2 : 145–157.,
<https://www.jstor.org/stable/248051>
- Healy, P. M. and J. M. Wahlen. 1999.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s* 13(4) : 365–383.,
<https://doi.org/10.2308/acch.1999.13.4.365>
- Hoi, C. K., Q. Wu, and H. Zhang. 2013.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Evidence from irresponsible CSR activities. *The Accounting Review* 88(6) : 2025–2059., <https://doi.org/10.2308/accr-50544>.
- Joe, J. R. 2003. Why press coverage of a client influences the audit opin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1) : 109–133., <https://doi.org/10.1111/1475-679X.00098>
- Kim, Y., M. S. Park, and B. Wier. 2012. Is earnings quality associated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Accounting Review* 87(3) : 761–796.,
<https://doi.org/10.2308/accr-10209>.
-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3) : 375–400.,
[https://doi.org/10.1016/S0165-4101\(02\)00059-9](https://doi.org/10.1016/S0165-4101(02)00059-9)
- Kölbel, J. F., T. Busch, and L. M. Jancso. 2017. How media coverage of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 increases financial ris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8(11) : 2266–2284., <https://doi.org/10.1002/smj.2647>
- Litt, B., D. Sharma, and V. Sharma. 2014.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earnings management.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9(1) : 76–106.,
<https://doi.org/10.1108/MAJ-05-2013-0867>
- Nazari, J. A., K. Hrazdil, and F. Mahmoudian. 2017. Assessing social and environmental

- performance through narrative complexity in CSR reports.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cs* 13(2) : 166–178., <https://doi.org/10.1016/j.jcae.2017.05.002>
- Palmrose, Z. V. 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tract type to audit fees and hours. *The Accounting Review* 64(3) : 488–499., <https://www.jstor.org/stable/247601>
- Sharma, D. S., V. D. Sharma, and B. A. Litt. 2018.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xternal assurance, and firm valuation.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7(4) : 207–233., <https://doi.org/10.2308/ajpt-51940>
- Simunic, D. A.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1) : 161–190., <https://doi.org/10.2307/2490397>.
- Xie, B., W. N., Davidson III, and P. J. DaDalt.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3) : 295–316., [https://doi.org/10.1016/S0929-1199\(02\)00006-8](https://doi.org/10.1016/S0929-1199(02)00006-8)

“본 논문은 학회윤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논문에 대한 판권을 학회에 위임합니다.”

<Abstract>

The Effect of Corporate ESG Performance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Wook Bin Leem* · Dong Hyun Ki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 company's non-financial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s ESG rating) on audit fees and hour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SG ratings report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hereafter, KCGS) on audit fees and hours for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1 to 2019 by applying the difference method.

[Finding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hen a model similar to the existing research model was set similar results were shown. However, when the analysis is performed by applying the difference method, it was found that this relationship is maintained with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a decrease in significance level only in changes in social (S) performance and changes in the next audit fee.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results were not maintained with respect to changes in audit time. This is judged to be the result because changes in non-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ESG do not increase audit risk.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judged to have a high academic contribution by discovering the causes of domestic studies that do not match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and presenting the research results by applying the difference method as a solution.

Key words : Audit Fees, Audit Hours, ESG Performance, Difference method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wookbin@hansung.ac.kr (First Author)

*** Doctoral candidate, Chung-Ang University, mershkim@naver.com (Corresponding Author)